

세종신당 발기취지문

우리는 앞선 세대의 지혜와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 안는다. 세종의 애민 정신, 이승만의 건국 정신, 박정희의 개발 정신 등 위대한 지도자와 선각자들의 혼백과 공功은 깊이 새기고,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는 치열하게 성찰하여 미래 창조의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과 개화독립 노력에 대한 폄훼와 건국산업화에 대한 자학을 경계한다.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의 저력과 정신·방법에 대한 무지를 좌시하지 않는다. 조선-일제-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빛과 그늘을 사실적, 종합적, 균형적으로 조명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만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위기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생존과 자존이 위협받고, 사회의 신뢰와 통합이 금이 가고, 경제의 활력과 청년의 희망이 질식하고 있다.

이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물질문명과 경제·기술의 발전 수준에 비해,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정신문화와 법제도의 심각한 지체에서 오며, 위기의 진원지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죽고 사는 민간 산업·기업과 달리 독과점에 안주하는 정당정치 발전 지체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정치인·정당·정부·국회)의 민의(民意)정련, 갈등조정, 사회통합 기능이 후퇴하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할 권리(노동권)와 권리(재산권), 권리와 의무·부담, 이익과 위험, 권한과 책임(자질) 간 불균형이 극심해졌다. 부분적 개선(권리·이익·혜택의 상향·확장·공고화)이 전체적 기능부전을 초래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지방·재정·연금·건보·주력산업·정신문화·사회통합과 외교안보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 새로운 시대

의 도래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국가, 민족, 산업, 기회의 명운을 바꾸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중국 견제와 시진핑 주도 하에 폐쇄적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위기 징후에 따른 자유통일 기회도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대응 여하에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정치의 체제를 극복하고 정당의 모순과 취약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애민정신에 기반한 정당정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적인 방향의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고, 역사 인식, 정신문화, 철학가치, 정치지형과 헌법, 선거법, 정책 패러다임과 정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세종대왕, 이승만, 박정희 등 조상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세계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토대와 골조로 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세종신당의 믿음

1. 나의 발전이 나라 융성의 근본이라고 믿는다.
2.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투철한 강한 개인, 건강한 가족, 자조·자치·연대의 공동체, 창조 도전 정신이 넘치는 기업,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고,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는 사회문화가 나의 발전과 나라 융성의 관건임을 믿는다.
3.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은 선진문명 수입, 모방, 창조, 연대와 개인, 기업, 민간, 정부 차원의 세계경영과 인류공영에 대한 기여에 있다고 믿는다.
4. 2차세계대전 이후 자유화, 산업화, 민주화와 산림녹화를 동시에 이룩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전체주의를 막아낸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과 개도국, 대륙과 해양의 가교 국가로서, 아시아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길임을 믿는다.
5. 30개가 넘지 않는 음소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에 더 빛나는 소통 수단(문자)인 훈민정음 등 우리가 가진 문화적, 기술적

자산과 우리가 창조한 20세기 인류사적 기적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수단이자, 세계적 문화대국의 발판임을 믿는다.

6. 올바른 역사인식과 냉철한 현실인식이 선진적 정신문화와 사상이념의 바탕임을 믿는다.

7. 위대한 정신과 방법을 가진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해야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8. 부분적 개선개혁이 전체적인 기능부전으로 귀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지금의 대한민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세방략 없이는 다방면에서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없다고 믿는다.

9. 혼과 열이 살아 있고, 비전과 정책이 탄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 건설이 새 역사 창조의 발판이라고 믿는다.

10. K콘텐츠의 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넘어 자비의 정신을 일깨우는 근간이 구축해야 한다.

2023년 2월 16일

세종신당 창당준비위원회